

월/요/광/장

강은국



필자는 지난달 본란을 통해 중국의 남방사람과 북방사람이란 제목으로 중국 문화의 한 측면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국문화 산책의 연장선에서 언어와 언어 사용, 건축양식, 문화과 예술, 음식문화 등을 비교하면서 중국 남방과 북방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본다.

정도이니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남방의 언어는 방언이라기보다는 외국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남방 각 도시의 학교와 호텔, 상점 등 공공장소에는 '보통말(표준어와 비슷한 개념)을

중국 남방·북방 문화의 차이

쓰시다'란 문구들이 눈에 띄는 원인으로 바로 여기에 있다.

언어 사용에서도 남방사람들은 완곡한 표현을 쓰지만 북방사람들은 직설적인 표현을 좋아한다. 북경의 택시 기사들은 외지 손님들이 북경의 발전에 대해 칭찬을 하면 특이양양해서 "발전이 참 대단하지요. 다음에 오시면 더 달라보게 변할 겁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상해의 택시 기사들은 이런 칭찬을 들으면 북경 사람들과는 달리 "필요, 이게 모두 전국 국민이 도와준 덕분이지요. 여러분에게 감사사를 드리야지요"라고 말한다.

건축에도 차이가 난다. 남방의 원림건축은 소주의 절정원에서 보듯 내외의 공간이 서로 통해 있지만 북방의 원림건축은 내외 공간 계선이 분명하다. 북경의 이화원처럼 도시의 일반 건축물도 남방에서는 개성이 분명하지만 북방의 건축물들은 천편일률적이다.

북방에서 가장 큰 도시인 북경의 건축물만 보아도 하나같이 벽돌을 세워놓은 듯 네모 반듯하다. 그러나 상해의 건축물은 원형, 삼각형, 능형 등 각양각색의 건축물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내고 있다. 북경

풍)이란 말이 있는데 민가를 뜻함)으로 특징지어진다. 남방의 곡(曲)은 명주실을 잦는 듯하고 북방의 곡(曲)은 총을 연발하는 듯하다. 유명 연예인 중에 여성은 남방 출신이 많고 남성은 북방 출신이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음식도 확연히 다르다. 남방사람들은 쌀밥을 주식으로 하지만 북방사람들은 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남방 음식은 단 것이 특징이고 북방 음식은 짠 것이 특징이다. 남방과 북방의 음식 문화는 그 질과 양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방요리는 질로 승부를 하는 것 같고 북방요리는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다. 남방 요리는 양이 적은 대신 매우 깔끔한 것이 특징이지만 북방의 요리는 양은 많지만 깔끔하지 못하다.

음식을 고르면서도 남방사람들은 영양가를 많이 따지지만 북방사람들은 양을 중시하는 편이다. 북방사람들은 대파를 와자와자 깨를 먹어서 먹지만 남방사람들은 쪽파를 잘게 썰어 음식 맛을 낸다. 북경사람들은 지금도 "상해 사람들은 재래시장에서 쪽파를 사도 한 두 뿌리씩 사고, 양고기 샐브르를 먹어도 열 사람이 겨우 1kg밖에 주문하지 않는 구두쇠"라고 비웃기 좋아한다.

문화예술도 남방문화는 소(騷), 즉 굴원의 이소(離騷)를 대표로 하는 문체의 하나인 소체(騷體)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반면 북방문화는 풍(風)(시경에 '국풍(國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주무 장관이 준비 서둘러는 여수엑스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8일 2012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인 여수를 찾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약속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방문지로 여수를 선택한 것이다. 현정 행정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람회 주관 부처 장관의 방문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정 장관은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박람회 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후속 법령 제정과 조직위원회 구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폐지돼 아쉽겠지만 국토해양부가 박람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고무적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주무 장관이 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한 만큼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박람회는 4년여가

남아 있지만 일정을 감안하면 촉박하다. 당장 인정신청서를 5월10일까지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에 제출해 BIE 집행위와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서 제출이 두 달 앞으로 임박했지만 업무를 총괄할 조직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조직위 구성부터 서둘러야 한다. 관련법이 제정됐고 주무 장관이 시급성을 강조한 마당에 조직위 설립을 미룰 이유는 없다. 정 장관은 "국제적 행사인 만큼 국제적으로 명망 있고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야엔 권유했다"며 위원장 인선 기준까지 제시했다.

박람회 기간 채택될 여수 선인과 여수 프로젝트 추진에도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 박람회 유치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여수 선인과 여수 프로젝트는 국토해양부 비터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다.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도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광주출입국사무소 인력난 방치할 건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력이 크게 부족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인력 충원이 전혀 안돼 출입국 심사를 비롯한 외국인 관리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안공항의 경우 최소 20명의 출입국 심사관이 상주해야 하지만 광주·무안공항의 출입국 관리와 지역 내 외국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광주사무소 전체 인원은 2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매일 여수·목포사무소 직원 6명과 광주사무소 직원 1명을 차출해 무안공항 출입국 심사업무를 보고 있다. 그나마 14개 출·입국장 출구 가운데 5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으로 무안공항 이용객들은 출입국 심사에만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출입국 사실증명 등 일반 행정서비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서남권 거점공항인 무안공항이 인력난으로 제구실을 못한

다면 국가 이미지를 해칠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인력 부족으로 무안공항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외국인 관리업무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15명의 직원이 2인3천 여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갈수록 증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리가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2월 9명이 승조고 18명이 부당한 여수출입국사무소 수용시설의 대형화재에서 보듯이 외국인 관리업무는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도 광주사무소 수용시설의 야간 관리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고 그나마 1명은 공익근무요원이다. 대형참사를 겪고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당국의 배짱에 놀랄 만하다.

정부는 무안공항의 조기 활성화와 외국인 관리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카잔은 러시아 서남부 불가리아에 위치한 도시다. 인구 150만명의 교통요충지로, 기계·석유화학·모피 가공·철강산업 등 공업이 발달한 도시다. 러시아어권 중 하나인 타타르스탄공화국의 수도이다.

카잔은 1천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깊은 도시다. 이슬람교도인 불교도, 이후 16세기 중반 이반 뇌제에 의해 러시아에 합병된 뒤 오스만 제국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카잔은 이슬람과 러시아어권교 문화가 혼재된 독특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정교회 성당과 회교사원, 즉 동서 문화의 양존, 이

것이 카잔의 특징이다. 카잔을 비롯한 타타르스탄의 주된 인구는 타타르인이다. 몽골인의 피가 섞인 동양적 모습을 띠어 정통 러시아인과는 확연히 다르다. 타타르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이는 단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주역인 레닌이다.

레닌은 타타르인 특유의 강인하고 다

카잔



를 다니다 중도 포기했으며, 고리키는 카잔대 입학은 목표로 삼았으나 학비가 없자 권총 자살을 시도했다.

2013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놓고 광주와 카잔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 메드베데프 대통령 당선자가 하계 U대회 카잔 유치를 발 벗고 나섰다. 오

일달리로 무장한 러시아는 2013 세계육상대회와 2014 동계올림픽을 잇따라 유치하는 등 기세를 올리고 있다. 오는 5월 30일로 예정된 하계 U대회 개최지 결정에서 광주가 승리하길 기대한다. /오주승 시화1부장 jsh@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법조 칼럼

김덕은



최근 개그우먼 김미화가 두 딸의 성과 본을 지난해 재혼한 성균관대 윤승호 교수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 또 지난 2002년 딸 남편인 조성민과 과정을 맞은 뒤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자녀를 키워온 최진실은 지난 1월말 서울가정법원에 아들 환희(8)와 딸 수민(5)이의 성을 자신의 성인 '최'씨로 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등 유해 가족관계 등록제기 시행된 이후 자녀의 성, 본 변경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어 양자의 성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재혼가정이 아니라라도 부모가 이혼한 후 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 즉, 부가 모와 자녀를 심하게 학대하여 이혼한 경우, 부가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은 자녀의 의사와 장래 등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 변경을 허가할 수도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법원은 계부의 성으로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자녀의 성과 본 변경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나 개정 민법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도입시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순위에 놓고 자녀의 나이와 의사, 친아버지와외의 교류, 재혼 가정의 결속력 여부 등을 심리해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재혼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신청의 경우, 즉 이혼 후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전 남편에 대한 복수심, 증오 등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이미 성년인 자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에 대한 불만·불만 등으로 바꾸려 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법원은 신중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친족관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이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도 많다. 친아버지가 성본 변경을 한껏 잡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친양자 입양을 통해 미혼모가 신분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꾼다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변호사>

또한, 기존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 양자가 양친의 성을 따르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개정민법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

도서관에선 '이어폰 음악' 조심해야

얼마 전 공공도서관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이어폰을 꽂은 학생이 들어왔다. 이어폰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와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았으며 금방 끄지지 하고 기다렸지만 음악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이는 마당에 이어폰에서 새어 나오는 음악 소리는 소음일 수밖에 없다. 음악을 듣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즐거움과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MP3플레이어나 CD플레이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음악소리가 밖으로 들리지 않게 볼륨을 조금만 줄여도 이어폰으로 나오는 음악을 충분히 즐길 수 있지 않은가. <우향화·광주시 북구 우신동>

기고

최상준



50년대만 해도 광주천 다리는 5~6곳에 불과했다. 부동교는 불로동에서 광주천을 건너는 다리이다. 당시 그 다리 밑에서 목욕하고 낚시하고 부인들의 빨래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단기 4266년(서기 1933년)에 설치되었다고 다리기둥에 새겨 있으니, 75년이 넘어 그의 수명이 다 하면서 자동차 통행을 막기도 했다.

필자는 1977년부터 사동에서 살고 있다. 날마다 이 다리를 건너 출퇴근한 지 30년이 된 필자로서는 아쉬움이 많았다. 광주천 살리기운동이 벌어지

어져 버렸다. 이 표지판이 달려 있으니 불편한 모양이었다. 일방로 표시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서인지 아무도 그것을 지킨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멀리 돌아다니는 불편도 있지만 걸어 건너 갈 때는 다리 밑에 물고기 때가 드나드니 한참씩 구경거리도 되는 정든 다리다.

왜 이렇게 도덕심이 없어졌는가? 왜 자기 편의주의인가? 의리의 고장 광주에서 말이다.

<오사모> 등등 "O를 사랑하는 모임"이

부동교 사랑

고 부동교의 복원공사가 진행될 때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 일하는 인부들에게 간식도 가끔 내민 적도 있었다.

이 다리가 완공 되어 견고하고 아름다운 다리로 거듭났다. 자동차 통행도 일방이지만 재개 되었다.

관린한 만큼 불편함도 따르기 마련인가? 이 좁은 다리에 양쪽 주·정차로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하루 종일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다. 차에 적혀있는 연락처에 전화도 해보고 해당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단속도 부탁하지만 그 때 뿐이다. 한쪽에는 '진입금지', 반대편에는 '주정차 금지'라는 야광표지판을 붙여있지만 주·정차는 사라지지 않고

몇 달 지난 뒤에는 이 표지판마저 없

다던데 '부동교 사랑 모임'이라고 만들어서 돌아가며 지켜야 되는가? 감시카메라 설치 등 단속을 해야만 해결돼야겠는가?

며칠 전 '일방로 진입금지' 표시가 커다랗게 입구 바닥에 쓰여졌으니 두고 볼 일이다. 기왕이면 다리 위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고 크게 써 놓으면 못보았다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며칠 지난 아침 출근길에 보니 그 다리 위에 기적이 일어났다. 차도 와인도의 중앙분리대를 스텐리스 파이프로 설치해 놓았지 않은가? 역주행과 주정차가 사라지기를 기대한 필자의 소원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암체들의 양심에 대못질을 해 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 <남하도건(주) 후회장>

농민 대상 '황사 경보 시스템' 갖춰지면

몸이 좋지 않아 매일 병원에 들러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농촌 병원이자보니 각종 관절염과 농부증을 앓는 농민들도 적잖게 찾는 것을 알 수 있다.

농민 감기 환자는 토요일이나 장날에 많이 몰린다. 그런데 최근 며칠 사이에는 특정한 날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늘어났다. 황사로 인한 비염성 감기 환자와 폐렴 환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농민들이 황사를 무릅쓰고 들에서 일을 하다가 이런 질환에 걸린 것이다. 지난 주말에 수퍼급 황사가 농촌을 뒤덮었다. 그런데도 바쁜 농사일을 쉴 수 없어 이를 무릅

쓰고 일하다가 목과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도시에서는 황사 경보를 발령해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외출을 삼가게 한다. 학교의 경우 휴교령도 내린다. 하지만 농민들은 황사의 위험성을 모르기도 하지만 알고 있더라도 바쁜 농사일 때문에 그냥 집에 있지 못하는 듯하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이나 면사무소, 농협 같은 데서 황사경보를 알리고 황사가 아주 심할 때는 농민들이 농사일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다. <유진규·여수시 신덕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